

개인적특성과 창업환경이 10대, 20대, 30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오희선*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인데 이는 OECD국가 중 유일하다. OECD 청년고용률은 2009년 40.5%에서 2019년 43.5%로 증가했지만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하락했다.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국내 301개사는 채용을 미루거나 포기한 비율이 전체 50.5%에 이르면서 앞으로 청년 취업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이를 통해 개인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산업은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소년 비즈쿨 사업과 창업에듀, K-스타트업,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유망팀 300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초기창업단계에 지원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공급자 위주로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창업 성과는 미미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는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와 창업자금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고 30대는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창업을 기피 하는데 이는 40대이상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연령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년 창업지원대책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년창업대상자의 금전에 대한 태도, 창업역량, 성공한 롤모델, SNS 활용능력, 창업지원정책, 사회적지지, 인적네트워크, 해외시장 관심도가 창업의지에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0대의 경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는 특성화고등학교 150명, 20대 150명, 30대 150명으로 총 45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SPSS 23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 원인을 비교해 앞으로의 정책이 창업을 독려하고 지속력을 갖기 위한 방향으로 시사점을 제안한다.

핵심어: 청년창업지원정책, 개인적특성, 창업환경, 창업의지, 창업역량, 청년창업

I. 서론

1.1. 연구배경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과 기업의 고용률 저하는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규모의 양적인 확대는 한계성을 갖고 있고 혁신과 융합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임정연 외, 2015).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과 정부의 투자를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

을 제시했다(이대기, 2014).

본 연구는 창업지원대상자가 개인특성, 금전에 대한 태도, 창업역량, 성공한 롤모델, SNS 활용능력, 창업지원정책, 사회적지지, 인적네트워크, 해외시장 관심도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에 기여하려고 한다.

중국의 경우 창업기업인 중소벤처기업이 중국경제 성장의 75%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창업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66%이고 기업의 형태도 90%가 창업기업이 것으로 나타났다(Lo Choi Tung, 2011). 다국적 기업들의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은 청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pigtoy2@hanmail.net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kyusoo@naver.com

년창업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7년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5~34세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활동비율은 4.7%로 전체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62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저해요인을 비교하고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창업의지의 선행요인은 환경적 특성, 창업저해요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실효성, 고용 가능성, 창업교육 만족도, 인적, 물적 네트워크 환경, 기업가적 역량, 창의성, 창업가역량, 성취욕구, 성장지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연구에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도, 금전에 대한 태도, SNS 활용능력 등의 요인을 함께 분석해 창업 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비교분석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배경

2.1. 청년창업

우리나라 ‘청년’의 나이는 29세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통령령으로 청년에 대한 연령을 15세이상 29세이하로 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대상자는 15세이상 34세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경우 6년 한도를 포함시켜 만 39세이전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성은정, 2019).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 정부의 ‘청년’ 정의는 만 39세이하로 확대 해석의 경우가 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지원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40세이하로 청년 자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청년창업은 물질과 금전적 자원을 갖춘 청년창업자가 자신이 계획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개인적 특성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내부와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다양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창업가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창업환경의 특성으로 가족 창업경험, 성별, 나이, 도전정신, 위험감수성, 자신감 등이 있으며 또 다른 후천적 특성

으로는 교육수준, 개인소득, 인적 네트워크, 개인의 창업기술 등이 있다(오상훈, 2014).

2.3. 창업환경

창업가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창업자를 지원하는 멘토의 역할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물적 네트워크,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중요 변수로 나타난다(Dewhurst & Gorobin, 1988).

창업자는 정서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사업을 하는 창업자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기업의 초기단계에서 성장단계까지 전 구간에서 창업환경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2.4. 창업지원정책

OECD(2014)는 창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낮은 국가일수록 기회형 창업이 활발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비용 부담이 높아 생계형 창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나 창업요인에 의해 다른 창업이 나타나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생계형 국가가 한국, 스페인, 그리스이다.

특정한 국가의 창업 환경을 조사한 Dana(1990)에 따르면, 세계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창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창업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벤처 창업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4차산업 환경속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전략 위해 민첩하게 대응하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2.5.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가까운 미래에 기업 설립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하는 것이다. Bird(1988)는 새로운 아이템을 계획하는 욕구와 개인 사업을 창업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영업에 관심과 행동을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 창업가를 목표로 삼고 창업의지를 갖는 것은 기업 창출 효과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Krueger(2000)는 업무에 대한 기능적 통제와 불확실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창업에 대한 의지가 달라진다고 한다. Hmieleski와 Corbett(2006)의 연구에서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성취욕구, 통제를 위한 업무인식, 창업 위험성에 대한 수용태도와 도전정신 등은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나이, 내적인 통제능력,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이 창업 의지에 영향요인으로 중요 변수라고 한다(박시사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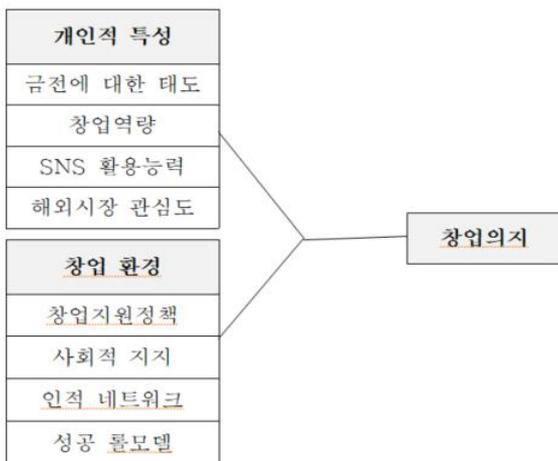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청년 실업은 개인의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형성을 방해해 국가의 경쟁력을 낮추며 소득까지 감소시켜 경제기반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중소기업청, 2013).

정부는 창조경제 향상을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대학원, 창업선도대학, 산업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부처별로 진행되는 창업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속력과 창업기업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개인의 성취동기와 부를 창출하게 하고 국가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창업의지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하규수 외, 2010).

본 연구는 창업지원 대상자가 창업환경과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10대부터 30대까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집단간 금전에 대한 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집단간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집단간 SNS 활용능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4. 집단간 해외시장 관심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5. 집단간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6. 집단간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7. 집단간 인적 네트워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8. 집단간 성공한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분석

10대에 대한 기존 연구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연구에 관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대의 경우 대학내 창업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대회나 교육 프로그램,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이 많고 30대의 경우 창업 아이템과 창업경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비율이 높다.

청년창업지원정책의 주요대상자인 10대부터 30대까지 각 연령층이 창업의지에 대해 어떠한 변수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지 분석 비교함으로써 기존 논문과의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연구 표본인 10대의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50명, 20대와 30대 각각 150명 총 450명으로 구성하고 각 변수별로 연령별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SPSS 23을 통해 회귀분석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중운. (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시기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79-87.
-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 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봉구원, & 김중규. (2019).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 자본이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창업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3), 191-204.
- 박수현(2017). *창업교육이 청소년의 창업 인식과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 성은정(2019). *20~30대 청년층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실패(손실)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벤처대학원
- 손종웅. (2015). *청년창업 성공요인과 지원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이주현. (2018, October). 국내 청년창업지원사업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In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 (Vol. 2018, pp. 1-13)*. *한국창업학회*.
- 이준형(2019). 청소년 창업역량이 창업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67-73.
- 오상훈(2014). *청장년 및 시니어 그룹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 양현봉(2013). 창업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공공저작물 연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간자료, 0-0.
-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2013). *대학내 창업지원단 설립·운영방안*
- 통계청자료(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규수·한정화(2010). 여성의 사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36.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Dana, L. P.(1990). Saint Martin Sint Maarten: A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culture o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8(4), 91-98.
- Hmieleski K. M., & Corbett, A. C.(2006).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Small Business Management*. 2006; 44(1), 44-63.
- Kruger N. F.(2000) The cognitive infrastructure of opportunity emerg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00; 24(3), 5-23
- OECD(2014).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 OECD Publishing, Paris.*